

학생용
중등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가이드라인

학생용
중등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가이드라인

개발진

집필진

- 남순임(평원중학교 전문상담교사)
- 이미조(외솔중학교 전문상담교사)
- 이지혜(서울신탑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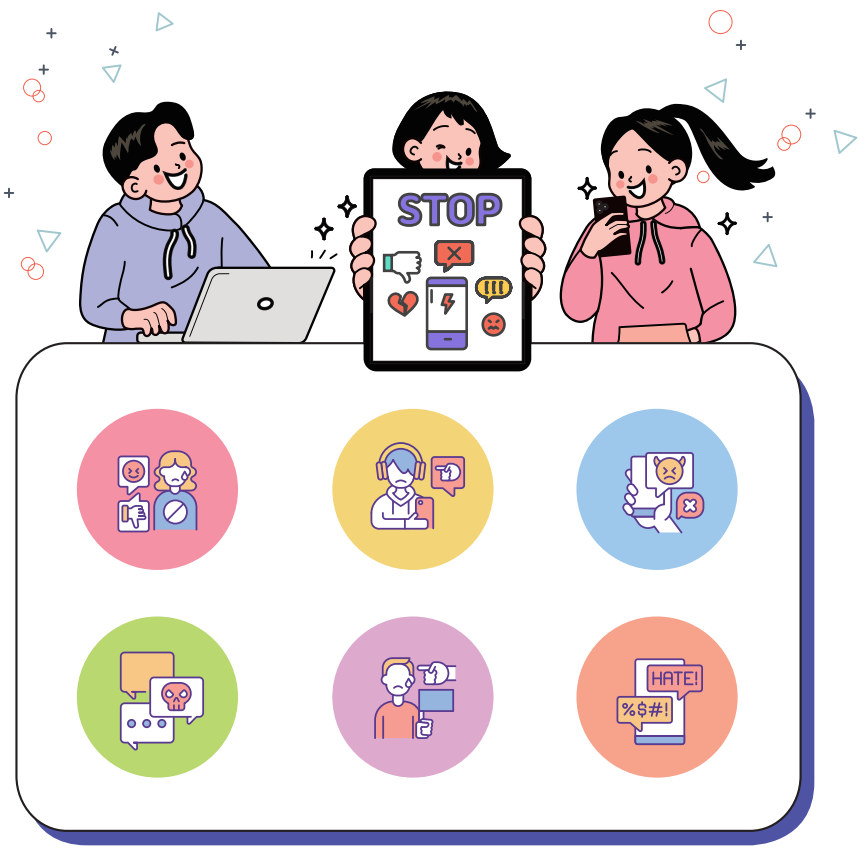
기획 및 검토

- 이선영(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 정혜금(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 양하나(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연구협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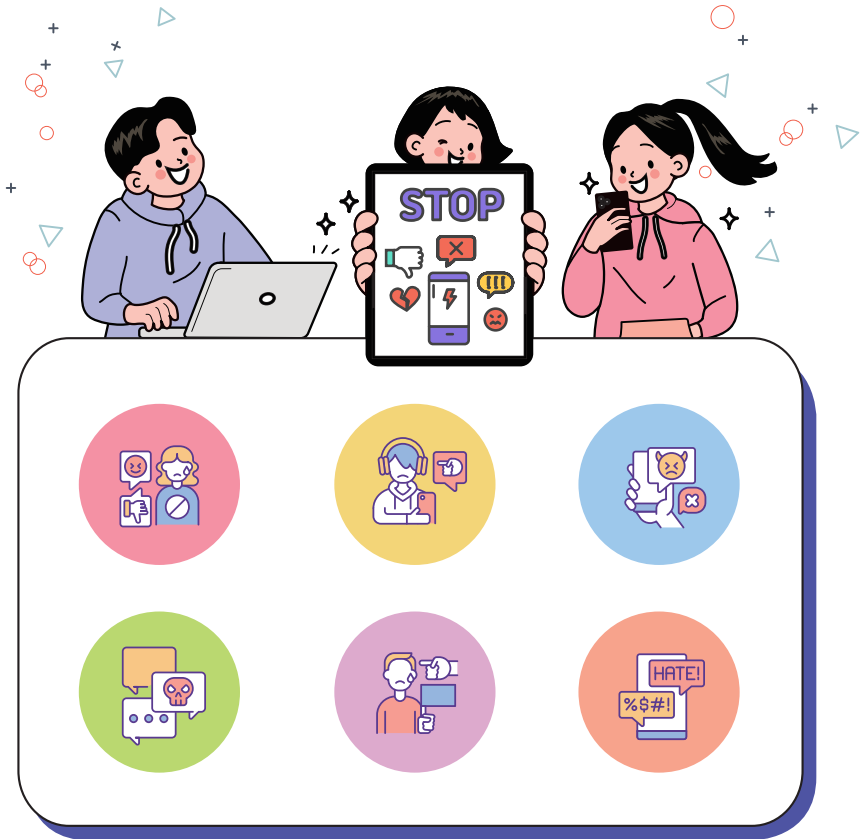
- 유상범(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과장)
- 한유화(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교육연구관)
- 김주숙(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교육연구사)

본 자료는 2021년 한국교육개발원 "사이버폭력 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에 기초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문의처: 한국교육개발원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043)-530-9170



학생용
중등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가이드라인



CONTENTS

CHAPTER 01

사이버폭력이란 무엇일까요?



사이버폭력이란	04
사이버폭력 특징	07

CHAPTER 02

사이버폭력 이렇게 예방해요.



사이버공간에 글을 올릴 때는	08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	08
사이버 공간에서도 서로 배려합니다.	
개인정보 공개는	08
최소한으로 합니다.	
모르는 사람과의	08
직접적인 만남은 피합니다.	
확신할 수 없는 정보는	09
무시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영향에	09
휩쓸리지 않습니다.	
음란물과 폭력물을 필터링하는	09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CHAPTER 03

사이버폭력 이렇게 대처해요.



거부감이 드는 말과 행동에는	11
싫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기!	
보복하려 시도하지 말고	11
그곳을 떠나라!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11
철저히 확보하라!	
고민하지 말고 어른에게 알리기!	12
본인이 피해를 입은 폭력적인	12
정보 게시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라!	
상담과 신고가 필요하다면	12
학교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하라!	

CHAPTER 04

참고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	13
질의·응답	14

사이버폭력이란 무엇일까요?

사이버폭력이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헐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및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즉,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괴롭히는 것은 '사이버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예방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폭력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예시상황	QR
사이버 명예훼손	▶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예) 개인이 SNS상에서 피해 대상을 특정해 게시글이나 댓글로 비난하는 행위	
사이버 모욕	▶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예) 가족 친지를 농담의 소재로 삼아 모욕하는 행위	
사이버 성폭력	▶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 유통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예)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 주거나 찍게 하는 행위	
사이버 스토킹	▶ 사이버 공간에서 원하지 않는 문자, 사진,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 (예) 동의 없이 상대방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 따돌림	▶ 떼까(다굴), 카톡감옥, 방폭, 멤놀 등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상대를 따돌림하는 행위 (예) 단체 대화방에 지속적으로 초대하여 나가지 못하게 가두어 괴롭히는 행위	
사이버 갈취	▶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금품갈취를 하는 행위	
사이버 강요	▶ 속칭 와이파이 셔틀, 게임 대행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강제적 심부름) (예) 핫스팟 연결을 강요하여 공짜로 인터넷 데이터를 이용하는 행위 ▶ 게임부주, 강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예) 타인의 계정을 사용하면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예) 수치스럽거나 하기 싫은 행동을 강요하여 인종하도록 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퀴즈를 풀어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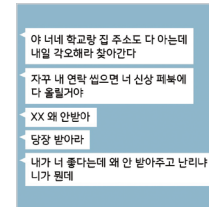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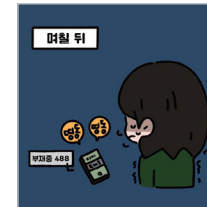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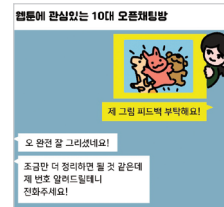
Q 인터넷 기사를 확인하고 온라인에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았다.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에 대한 내용도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기재하면 사이버폭력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아래의 사례는 사이버폭력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스토킹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악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포감,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117, 문자신고 #0117



Q 아래의 사례는 사이버폭력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사이버 강요
상대방의 데이터, 사이버머니 등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는 사이버 강요입니다.

Q 온라인상에 올렸던 글, 그림, 동영상의 보관 기간은 얼마일까요?



영구적
사이버상에 작성한 글은 캡처와 저장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의 계정을 삭제하고 탈퇴하더라도 남아 있을 수 있어요.

Q 사이버폭력을 당했을 경우,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117, 문자신고 #0117
사이버폭력도 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화가 어려울 경우 문자로 #0117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이버폭력 특징

첫째 사이버폭력은 은밀하게 발생합니다.
비대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폭력은 매우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발생합니다.

둘째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시공간적 제한 없이 사이버폭력이 행해지거나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가해 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익명성의 특징을 이용하여 다수의 가해자가 손쉽게 사이버폭력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넷째 소문이나 허위 사실이 빠르게 확산됩니다.
SNS,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를 공격하는 소문이나 허위사실 등이 빠르게 복제, 확산되어 피해가 확대될 수 있음. 이러한 특성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피해기록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공간의 자료는 무한복사와 빠른 전파성으로 자료의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피해 기록이 오랫동안 남아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평생 기록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0).

사이버폭력 이렇게 예방해요.

사이버 공간에 글을 올릴 때는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인터넷상에 게시물, 댓글을 작성할 땐 한번 더 생각해보고 써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과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사이버 공간에서 글을 쓸 때는 더욱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써야 합니다.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 핸드폰 메모장, 카카오톡 나에게 메시지 쓰기 등을 사용해서 내가 쓸 말을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 사이버 공간에서도 서로 배려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나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파일을 전송하는 등의 구체적 행위를 취하기 전에 내가 쓴 글을 상대방은 어떻게 해석하고 느낄 것인가에 대해 미리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요.

개인정보 공개는 최소한으로 합니다.

나와 가족의 이름, 연락처, 직장, 사진 등은 중요한 개인정보임으로 가급적이면 공개하지 않아요. 특히,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경우 문제가 예상되는 민감한 정보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온라인 계정 ID/비밀번호, 기타 신상정보)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 공개하지 않아요. 또한 계정 보호를 위해 2단계 인증을 하거나 다른 매체로 접속하지 못하도록 설정해요.

모르는 사람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피합니다.

온라인에서 알게 된 상대와 직접적으로 만남을 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만남을 거절했는데도 상대가 만나자고 한다면, 반드시 선생님이나 보호자에게 알리고 신고해요.

확신할 수 없는 정보는 무시합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글과 영상, 사진 등을 유포할 경우 사이버폭력에 해당됩니다. 또한 사실을 확인해볼 수 없는 게시물과 링크를 클릭할 경우 보이스피싱 및 해킹 등에 악용될 수 있으니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확인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의 영향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친구들의 언행 또는 유행을 따라 하다가 무의식적으로 사이버폭력에 가담할 수 있어요. 악플 방지를 위해 선플 운동을 하는 등 바람직한 행동에 참여하여 건강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가요.

음란물과 폭력물을 필터링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합니다.

인터넷을 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는 반드시 음란물과 폭력물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란폭력물 차단 프로그램

컴퓨터: 그린-Net(www.greeninet.or.kr/)

언어폭력 경고메시지 수신서비스

스마트안심드림: <https://ss.moiba.or.kr/>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5, 2017, 2019b).



중등용

건강한 디지털 시민 되기!
사이버폭력으로부터 나와 친구를 보호하는 방법

제목	분량	내용	QR
[아인세X선바X유구선] 온라인 트롤 대탈출 	23분	크리에이터 선바와 유구선이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은 무엇일까요? 1) 건강한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노력 2) 사이버폭력의 이해 3) 디지털 시민 되기	
[아인세 단편영화-24] 	15분 29초	인싸가 되고 싶은 태환과 민성에게 24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신중한 정보공유의 필요성, 정보의 급속한 확산과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아인세 단편영화	
[아인세 미니다큐] 영원한 순간 	6분 15초	꿈을 이루기 위한 소중한 순간 속,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순간은 없었는지? 영원히 남는 본인의 디지털 기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 해피스쿨 	49분	친구 간의 작은 오해가 SNS에서 사이버폭력으로 이어져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고 이를 극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19년 예술체험형 공연교육 중고등학생용 뮤지컬 (오 해피스쿨) 실연영상	
사이버폭력예방 애니메이션 악플달지마새우! 	1분 25초	[웹리수호대#1] 악플달지마새우 인터넷 세상을 지키는 웹리수호대 첫번째 이야기 유명 유튜버 인어, 악플러에게 선처 없음으로 이너피스!!! 악성댓글을 다는 성계를 향한 일침	
사이버폭력예방 애니메이션 사이버폭력하지 않는 당신이 랍스터! 	1분 20초	[웹리수호대#2] 사이버폭력 하지 않는 당신이 랍스터!!! 인터넷 세상을 지키는 웹리수호대 두번째 이야기 친구를 따돌리지 마시게!!!! 온라인으로 친구를 속상하게 하는 것도 사이버폭력입니다!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 홈페이지(www.아인세.kr)

사이버폭력 이렇게 대처해요.

거부감이 드는 말과 행동에는 싫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기!

거부감이 드는 말과 행동을 하는 상대방에게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이 “나는 싫다!” 라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추가적인 말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자리를 피하도록 합니다. 상대방이 거부감이 드는 말과 행동을 반복한다면 차단하거나 관리자 신고 기능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보복하려 시도하지 말고 그곳을 떠나라!

친구가 사이버 공간에서 욕설을 했을 때 똑같이 험한 말로 되갚아 주거나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말싸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부 및 거절의 의사 표현을 분명히 남기고 즉각 사이버 공간에서 벗어나고 이후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재방문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라!

사이버 공간에서 악성 게시글, 댓글 등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캡처, 사진 찍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주변 목격자들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캡처 기능을 활성화한 직후에 이제부터 캡처를 하겠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고, 이후 지속되는 폭력적인 언행이 담긴 화면을 저장합니다. 상대방에게 캡처 사실을 알린 후 확보한 증거는 효력이 더 큼니다. 저장된 파일의 일시, 장소를 따로 기록해두거나 파일명에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00% 해결 방법

- 1 채팅방에서 화면캡처 기능을 찾는다. (스마트폰: 캡처, PC: 스크린샷)
- 2 화면캡처 기능을 활성화한다.
- 3 다시 한 번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난 후, 지금부터 화면캡처를 할 테니 폭력을 멈추라고 선언한다.
- 4 캡처된 파일을 잘 저장한다.
 - 상대방 ID가 확인될 경우: 게시일시·공간, 글 내용이 나오도록 캡처
 - 상대방 ID 미확인 시: 게시일시, 인터넷주소 전체, 접속IP 등 캡처
 - 작성자가 게시글을 삭제하여 캡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장면을 함께 보았던 목격자를 찾아보거나 해당 사이트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움 요청
- 5 일시와 장소를 별도로 적어두거나 파일명에 기록해둔다.
- 6 파일 크기가 너무 큰 경우에는 원본 파일을 따로 저장해두고 그림 파일 크기를 줄여주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해상도를 조절해본다.
- 7 영상일 경우, 해당 영상을 저장하거나 저장이 어려운 경우 해당 영상을 동영상상으로 녹화한다.
- 8 통화의 경우,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활용하거나 녹음이 어려운 스마트폰의 경우 다른 저장 매체를 활용하여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면서 녹음한다.

고민하지 말고 어른에게 알리기!
 내가 피해를 당하거나 친구의 피해를 목격했을 때,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려 하거나 가해자에게 직접 보복을 시도하지 말고 반드시 선생님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알리는 것만으로도 사이버폭력 문제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은 폭력적인 정보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라!
 심각한 명예훼손이나 거짓 정보 유포가 벌어졌다면, 사이트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삭제나 블라인드 처리를 요구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경찰신고 이외에도 사이트 관리자에게 해당 게시물 삭제 요청,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privacy.kisa.or.kr)에 침해 구제신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www.kocsc.or.kr)에 조정신청이 가능함

상담과 신고가 필요하다면 학교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하라!
 사이버폭력에 대해 학생이 어려움을 호소할 경우 조언 또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학교나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히 신고 할 수 있는 방법

- 1 국번 없이 117로 신고
- 2 전화가 힘든 상황일때는 #0117로 문자 상담 또는 신고
- 3 인터넷 사이트 안전드림117센터(http://www.safe182.go.kr)에서도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 4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신고

도움기관	내용	QR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경찰청사이버안전국	사이버범죄신고	
안전 Dream 경찰청	경찰청 학교폭력관련 실시간 상담 - 신고 상담전화 117 - 신고 상담문자 #0117	

5 피해자료를 캡처한 후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5, 2017, 2019b).

참 고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

기관	유형	내용	QR
 17개 시·도교육청	학생위기종합상담서비스	(교육청 위(Wee) 센터, 학교 위(Wee) 클래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4시간 청소년 온오프라인상담	- 상담전화 1388(모바일: 지역번호+1388) - 상담문자 #1388	
 교육부 상다미쌤	상담	상다미쌤 카카오톡 채널 상담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	
 교육부 다들어줄게	다들어줄게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24시간 실시간 상담	- 상담문자 1661-5004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페이스북 메시지	
 푸른나무재단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상담 서비스	- 상담전화 1588-9128	



질의·응답

? 사이버 상에서 욕을 들었어요.

상대가 나에게 욕을 했을 때는 당황스럽고 화가 나죠. 이럴 때 욕설을 하거나 비방을 하는 등 같이 싸우게 되면 나도 사이버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즉각적으로 욕에 대해 반응하기보다는 **상대에게 불편하다는 의사를 밝힌 후 자리를 떠납니다.** 자리를 뜨기 전에 해당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사이버폭력을 당했는데,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화면 캡처, 사진촬영, 녹음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주변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수집한 자료의 파일명에 일시와 장소를 기록해주세요. 시스템의 특성으로 캡처가 어려운 경우 핸드폰으로 해당 장면을 직접 촬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계정을 탈퇴하여 증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목격자를 찾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여 도움을 받습니다. 사이버폭력은 기록이 남겨져 있을 수 있으니 증거를 확보하여 학교나 117에 즉각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이버폭력을 당하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사이버폭력이 발생한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부모님과 선생님 등 주변 어른들과 상의하세요. 주변 어른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학교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거나 117(전화신고), #0117(문자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이버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신고의 필요성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가급적 보호자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이버폭력 피해를 당하는 친구를 목격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이버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알게 되었다면 반드시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신고는 고자질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정의롭고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또래 친구들과 해결 하다가 자칫 어려움에 빠질 수 있으니 부모님과 선생님,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친한 친구가 나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내 사진을 올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한 친구이더라도 원하지 않는 정보 게시에는 삭제를 요청합니다. 장난이라도 불편감을 느낀다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삭제를 하지 않는 경우 사이트 관리자에게 사실을 알린 후 삭제나 블라인드 처리를 요구하고 처리결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또한 친구에게 말하는 것이 어렵다면, 학교 상담 선생님의 도움을 받거나 전화상담(1388), 카카오톡 상담(@상다미쌤)등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싫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이버상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혀요.

불편감을 표시했는데도 거부감이 드는 말과 행동을 반복한다면 상대방을 차단하거나 숨김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관리자 신고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반복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포기하고 싶거나 무기력해질 수 있는데 혼자 고민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어른과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요.

?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기가 꺼려져요.

사이버폭력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기가 꺼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불안감과 공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미룬다면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혼자 고민하지 않고 반드시 학교 상담 선생님, 부모님과 상의하세요.**

*폭력 관련 전문기관에서 상담 및 대처방법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채널(상다미쌤, 다들어줄게), 전화(1388, 117)

? 아이디 도용 및 신상털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아이디 등 계정 도용을 예방할 수 있는 수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을 것,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무분별한 회원가입은 자제할 것, 회원가입 시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가입 여부를 다시 한 번 생각할 것, 인터넷 회원가입 시 서비스 약관에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 탈퇴가 어렵거나 탈퇴 절차에 대한 설명이 없는 곳은 가입하지 않을 것, 탈퇴 신청을 한 뒤 개인정보를 파기했는지 확인할 것,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전화번호나 생일, 연속된 숫자 등을 사용하지 말 것, 함께 사용하는 PC는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시 자동완성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것** 등입니다. 간혹 원래 사이트 등에서 해당 정보를 삭제했으나 검색사이트에 검색 결과 값이 저장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글 등 검색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 삭제 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저장 페이지나 결과 값을 따로 삭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오래된 콘텐츠 삭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9a, 2020).

참고문헌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5). 사이버폭력 상담 및 피해자 치유를 위한 상담개입 치유 프로그램.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7). 2016-2017 사이버폭력 예방 교원 직무연수 자료집.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9a). 2019년 학교 사이버폭력 예방 Wee센터 역량강화 직무연수 자료집.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9b). 우리 아이를 위한 사이버폭력 예방 도우미(학부모 교육자료).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0). 2020 초등 고학년 사이버 어울림 기본역량

방송통신위원회·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아름다운 디지털 세상 홈페이지(www.아인세.kr)

CRM 2022-50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 가이드라인

학생용
중등

발행일 2022년 6월

발행인 류방란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주소 27873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7

전화 (043) 530-9114

팩스 (043) 530-9819

홈페이지 <http://www.kedi.re.kr>

디자인/인쇄 리드릭 (02) 2269-1919